

# 기출의 수[秀]법

2025\_09 생활과 윤리

# 분석서 구성

- 용어 정리

\*사상적 입장: 해당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

\*공통적 입장: 둘 이상의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입장

\*차별적 입장: 한 사상가는 동의, 나머지 사상가는 비동의할 입장

---

**[Comment]** 주요 사상가 정보, 선지에서 봐야 할 포인트 혹은 해야 했던 생각, 필자가 생각하는 난이도.

**[정답 선지]** 이 선지가 정답인 이유.

**[오답 선지]** 이 선지가 오답인 이유, 당연하게 오답인 선지는 설명을 생략함.

**[Tips]** 해당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하면 좋은’ 생각.

---

- 활용 방법

1. 인쇄하여 책자 형태로 중철한다.

2. 앞부분의 기출 모의고사를 푼다.

3. 시험지 바로 뒤의 빠른 정답으로 채점한다.

4. 틀린 문제, 짝어서 맞은 문제 등을 뒷부분의 해설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선지를 판단했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5. 날개 부분의 Tip을 보고 기출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린다.

6.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여 다른 기출에도 적용해본다.

(정답률 출처: 메가스터디)

\*정답률이 높은 편인 윤리학 분류, 윤리적 논쟁 문제는 제외하고 해설을 구성하였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제 (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삶의 이상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용법을 분석하고 도덕적 논증에 적용되는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명제의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규범과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 ③ (나): 사회의 관습과 규범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④ (나):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正思惟) 지혜로써 통찰했다.  
 을: 진인(真人)은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피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 ① 갑: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輪廻)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 ② 갑: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③ 을: 삶과 죽음은 기(氣)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
- ④ 을: 도(道)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 ⑤ 갑과 을: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오한다.

- ①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까지 요청되지는 않는다.
- ④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결코 관용을 실천할 수 없다.
- ⑤ 종교 간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옷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소비양식인 패스트패션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 줄 수 있지만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물론 패스트패션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생각하면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패스트패션 기업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제품 생산까지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을: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 자체를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①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 ② 패스트패션은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 ③ 패스트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 ④ 패스트패션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가?
- ⑤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가?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류는 그동안 수많은 동물 실험을 자행하면서, 이를 인간의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 실험이든 궁극적으로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 생체 실험이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처럼 동물 실험도 동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다른 존재의 복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 ② 동물 실험은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로 합리화해야 한다.
- ③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정의에 부합한다.
- ④ 동물 실험이 도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⑤ 동물 실험과 인간 생체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 근거는 동일하다.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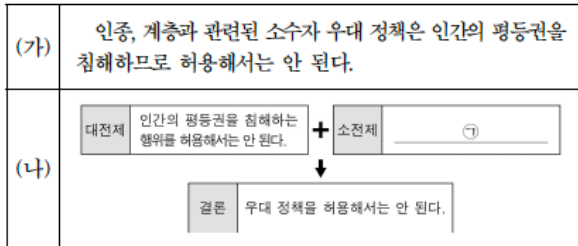
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지 율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을: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ㄴ.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ㄷ.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ㄹ.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우대 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킨다.  
 ② 우대 정책은 실질적 기회 균등 실현에 기여한다.  
 ③ 우대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지 못한다.  
 ④ 우대 정책은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⑤ 우대 정책은 인종과 계층 간 화합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다.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무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에게서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를 감히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 ①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②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③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킨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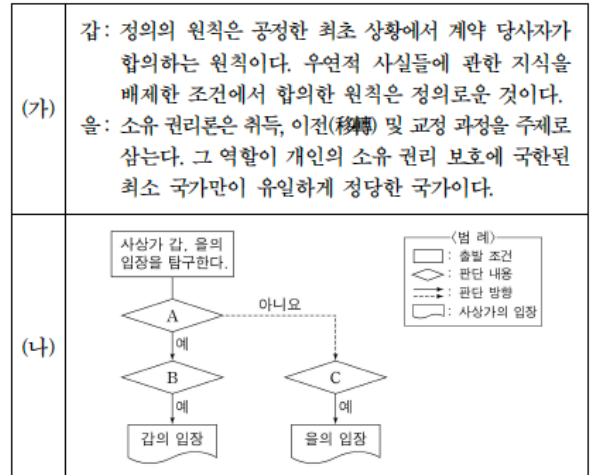
갑: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리바이어던이 없는 곳에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소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을: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 보존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

—<보 기>—

ㄱ. 갑: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ㄴ. 갑: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ㄷ.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ㄴ. B: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ㄷ. C: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ㄹ. C: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그 양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문제 상황>

한 지역에서 재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긴급히 투입된 구조대원 A는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선 구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② 신체의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 ③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총량을 계산하세요.
- ④ 구조의 의무는 결과와 무관한 정언 명령임을 명심하세요.
- 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유념하세요.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

<보 기>

- ㄱ. 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 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속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 ㄹ.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될 수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국가에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올바른이므로,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을: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 ① 갑: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급자족해야 한다.
- ③ 을: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義]보다 이로움[利]에 두어야 한다.
- ④ 을: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

14.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뉴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소비하고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전문 운영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신하고 다채로운 소재와 유형의 정보들이 생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정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있지만, 매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매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② 전문 운영자들의 등장으로 유해 정보가 감소하고 있다.
- ③ 뉴미디어 확산은 창작물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④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다.
- ⑤ 뉴미디어 확산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중신 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p> <p>을: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과 을의 공동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 ㄱ. A: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 ㄴ. B: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 ㄷ. B: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ㄹ. C: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이 되어서 인(仁)하지 못하면 예(禮)를 지킨들 무엇 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음악(樂)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예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한 것이 낫다.  
 을: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니[小國寡民] 이들은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은 꾸밈없이 입으며 편안히 살아간다. 이웃 나라에서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평생 오고 갈 일이 없다.

<보 기>

ㄱ. 갑: 충서(忠恕)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道)를 이루게 한다.  
 ㄴ. 을: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ㄷ. 을: 무위(無爲)의 삶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ㄹ. 갑과 을: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추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담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담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像)을 시에 새겨 넣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인들을 찾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씨의 닦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도록 해야 한다.

- ① 예술은 도덕의 영역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어야 한다.  
 ② 예술 작품에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③ 예술은 보편적 진리의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 활동이어야 한다.  
 ④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⑤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에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는 자국의 국력을 증강하며 타국의 국력을 감소 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이다.  
 을: 국가 간 제약이 없는 어떤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② 갑: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③ 을: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④ 을: 평화 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의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⑤ 갑과 을: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  
 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지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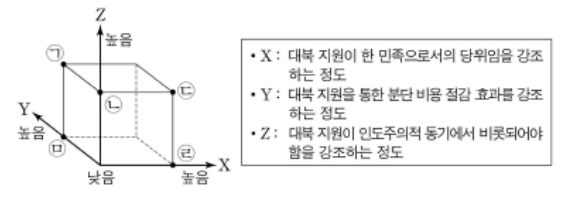
<보 기>

ㄱ. 갑: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ㄷ. 을: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대북 지원은 한 민족으로서 동포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대북 지원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일 뿐, 분단 비용 절감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나)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동포로서 가져야 할 의무도 아니다. 대북 지원은 분단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만 의의가 있을 뿐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빠른 정답

#	정답	출제 포인트	정답률
1	2	윤리학 분류_규범, 메타	95%
2	4	죽음관_석가모니, 장자	88%
3	2	종교 윤리_퀵	84%
4	1	윤리적 논쟁_패스트 패션	90%
5	5	윤리적 논쟁_동물 실험	96%
6	2	자연관_레오폴드, 칸트	59%
7	2	윤리적 논쟁_소수자 우대	78%
8	1	책임 윤리_요나스	72%
9	4	국가관_홉스, 로크	55%
10	4	정의관_롤스, 노직	62%
11	3	윤리적 접근_벤담	93%
12	3	시민 불복종_롤스	73%
13	4	직업관_플라톤, 맹자	89%
14	1	윤리적 논쟁_뉴미디어	97%
15	3	형벌관_베카리아, 칸트	73%
16	1	윤리적 접근_공자, 노자	78%
17	5	예술관_플라톤	91%
18	5	평화관_모건소, 칸트	52%
19	3	해외 원조_롤스, 싱어	55%
20	5	윤리적 논쟁_통일	92%

# #죽음관\_석가모니, 장자

##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正思惟] 지혜로써 통찰했다.

을: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피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 ① 갑: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輪廻)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 ② 갑: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③ 을: 삶과 죽음은 기(氣)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
- ④ 을: 도(道)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 ⑤ 갑과 을: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Comment]** 석가모니(갑)와 장자(을)의 죽음에 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어려운 선지도 없이 무난했고, 당연히 맞혀야 했던 문제이다. 포함 관계를 건드린 1번 선지만 살짝 유념해 두자.<sup>1</sup>

### [정답 선지]

④ 장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장자는 만물의 생성, 변화 원리인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설명 생략)

---

<sup>1</sup> 사실 직관적으로 “-만”이라고 하면 오답인지 의심은 했을 것이다.



## #종교 윤리\_킹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오한다.

- ①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까지 요청되지는 않는다.
- ④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결코 관용을 실천할 수 없다.
- ⑤ 종교 간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Comment]** 한스 킹의 종교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기출에 잘 출제되지 않은 사상가라 당황할 법도 하지만<sup>2</sup>, 제시문만으로도 선지를 판별할 수 있었고,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그저 무난했다.

### [정답 선지]

② 킹의 사상적 입장이다. 킹은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차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식적인 맥락에서도, 만약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차단한다면, 제시문은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할 리 없다.

### [오답 선지]

(설명 생략)

<sup>2</sup> 2024학년도 수능 20번에 출제된 바 있으며, 2025 수능완성 96P 5에서 출제되었다. 생소한 사상가를 잘 대비하기 위해 기출과 EBS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연관\_레오폴드, 칸트

6.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지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을: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ㄴ.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ㄷ.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ㄹ.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Tips] 자연관 문제의 출제 포인트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올 만한 주제인 자연관은 각 사상가가 보는 **도덕적 권리 주체의 포함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포함 관계에 따라 공통적 입장, 차별적 입장이 많이 갈리기 때문이다.

- 인간: 칸트
- (일부) 동물: 상어, 레겐
- 생명체: 테일러
- 생태계 전체: 레오폴드

**[Comment]** 레오폴드(갑)와 칸트(을)의 자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특이하게도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하는 진술’을 고르는 문제로, 두 사상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지우면 답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선지가 어느 사상가가 동의할 입장인지는 유념해야 했다.

### [정답 선지]

ㄱ. 칸트에 대한 레오폴드의 차별적 입장이다. 칸트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토지를 자원, 즉 수단으로만 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레오폴드는 인간이 토지를 자원 뿐만 아니라 대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칸트와 레오폴드의 공통적 입장이다. 칸트는 인간이,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연 속에서 권리를 가지는 개별 존재라고 보았다.

### [오답 선지]

ㄴ. 칸트와 레오폴드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고,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 대지 공동체의 안정성을 지킨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칸트와 레오폴드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다른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책임 윤리\_요나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다.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에게서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를 감히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 ①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 ②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 ③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 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킨다.

**[Comment]**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얼마든지 복잡하게 선지를 만들 수 있는 주제지만, 2번 선지의 ‘호혜적’이라는 어휘를 모르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정답 선지]

① 요나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통해 책임의 범위가 인간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② 요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 호혜적<sup>3</sup>이지 않고, 일방적이라고 보았다.
- ③ 요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요나스는 현재의 사태와 함께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태 또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 ④ 요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요나스는 행위한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뿐만 아니라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사전 책임 또한 요청된다고 보았다.
- ⑤ 요나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요나스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의 발견은 현 세대의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

<sup>3</sup>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  
Made by Geunro

# #국가관\_홉스, 로크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리바이어던이 없는 곳에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소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을: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 보존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

<보 기>

ㄱ. 갑: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ㄴ. 갑: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ㄷ.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Comment]** 홉스(갑)와 로크(을)의 국가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국가를 설명한 두 사상가의 기본적 도식을 잘 알고 있어야 했고, ㄹ 선지를 판독하기 위해 두 사상가가 보는 자연 상태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다. (그래도 고난도 주제치고 정답률은 높다.)

## [정답 선지]

- ㄱ. 홉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홉스는 전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절대 권력, 즉 리바이어던이 시민의 소유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ㄴ. 홉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홉스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자연 상태는 무질서한 전쟁 상태라고 보았다.
- ㄷ. 홉스와 로크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이라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4</sup>

## [오답 선지]

ㄹ. 로크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하고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Tips] 사회계약설의 기본 도식<sup>5</sup>

사회계약설 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기본 도식은 다음과 같다.

- 홉스: 혼란스러운 자연 상태
  - > 생명권을 제외한 권리를 하나의 절대 권력에 양도
  - > 전제 군주정
  
- 로크: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 > 공평한 자연법 집행관이 없음,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
  - > 자연법 집행권 및 입법권을 국가에 신탁
  - > 대의 민주정
  
- 루소: 평화로운 자연 상태
  - > 사회 상태에서의 사유 재산제로 인한 불평등 출현
  - > 인민을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둠
  - > 직접 민주정

<sup>4</sup> 이처럼 자연권을 인정하는 것은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적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다.

<sup>5</sup> <기출의 수법 - 윤리와 사상>에도 있는 부분이다. 쌍윤리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의관\_롤스, 노직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이다.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로운 것이다.</p> <p>을: 소유 권리론은 취득, 이전(移轉) 및 교정 과정을 주제로 삼는다. 그 역할이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에 국한된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국가이다.</p>
(나)	

<보 기>

ㄱ. A: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ㄴ. B: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ㄷ. C: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ㄹ. C: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롤스(갑)와 노직(을)의 정의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률은 다른 문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1번과 3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14%로 꽤 높다. ㄱ, ㄷ, ㄹ 선지가 모두 헛갈렸다는 의미로, 순서도 유형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 [정답 선지]

- ㄴ.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한 정의의 원칙들은 상호 협동 체제의(=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고 보았다.
- ㄹ. 노직의 사상적 입장이다. 노직은 소유 절차인 취득과 이전이 정의로 있었다면 그 결과인 소유는 모두 정의롭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ㄱ. 롤스와 노직의 공통적 입장이다. 두 사상가 모두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공정한 절차가 분배적 정의를 만든다고 보았다.
- ㄷ. 노직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직은 최소 국가가 모든 시민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Tips] 순서도

순서도 유형은 '**화살표가 갈라지는' 파트에 해당하는 선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갑은 '예', 을은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은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차별적 입장**으로, 두 사상가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단, 3명의 사상가가 나올 경우에는 화살표가 닿는 두 사상가만 먼저 판독해야 한다.



# #시민 불복종\_롤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

<보 기>

- ㄱ. 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 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 ㄹ.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이번 9평은 이상하리만치 전통적인 고난도 주제가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 또한 그렇다. 아마 무난하게 3번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 [정답 선지]

- ㄴ.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도 그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게 공유된 정의관에 호소하며 권력자들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ㄱ.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롤스는 국가의 처벌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롤스는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시민 불복종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 1. 단순 부정 표현
-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

# #직업관\_플라톤, 맹자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국가에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올바른이므로,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을: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 ① 갑: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급자족해야 한다.
- ③ 을: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義]보다 이로움[利]에 두어야 한다.
- ④ 을: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

**[Comment]** 플라톤(갑)과 맹자(을)의 직업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당연히 맞혀야 했던 문제이고, 2번 선지의 ‘자급자족’이라는 어휘에는 주의할 것을 유념하자.

## [정답 선지]

④ 맹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맹자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항산]이 도덕적 인격 수양[항심]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①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플라톤은 국가가 시민의 지위 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플라톤은 각 계급이 자급자족<sup>6</sup>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맹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맹자는 다스림의 근본을 이로움보다 의로움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플라톤과 맹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두 사상가 모두 사회 내 역할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선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sup>7</sup>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

<sup>6</sup>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하여 채움

<sup>7</sup> 3번 선지가 ‘이로움’과 ‘의로움’의 선후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 #형벌관\_베카리아, 칸트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종신 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p> <p>을: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p>
(나)	

<보 기>

<p>ㄱ. A: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p> <p>ㄴ. B: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p> <p>ㄷ. B: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ㄹ. C: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베카리아(갑)와 칸트(을)의 형벌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생활과 윤리에 자주 출제되는 3원 밴다이어그램보다 순한 것이며, 무난한 난이도였다. 밴다이어그램 유형의 특이성만 잘 기억하자.

## [정답 선지]

- ㄴ. 베카리아와 칸트의 공통적 입장이다. 베카리아와 칸트 모두 범죄와 형벌의 비례 원리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ㄷ. 베카리아와 칸트의 공통적 입장이다.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력이 있더라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진되지 않는 형벌이, 칸트는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형벌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ㄱ. 베카리아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 노역형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범죄 억제력이 있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의 인격 교화를 위해서가 아닌, 생득적 인격 존중이 목적인 정언명령이라고 보았다.

## [Tips] 밴다이어그램

밴다이어그램 문제에서 **교집합 부분은 공통적 입장, 나머지 부분은 차별적 입장에** 해당한다. 단일한 사상가의 사상적 입장을 묻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모든 사상가가 해당 선지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 - 오답이 되는 원리 -

(A의 B에 대한 차별적 입장이 답일 때)

1. A의 사상적 입장이 아닌 경우
2. A와 B의 공통적 입장인 경우
3. B의 사상적 입장인 경우

# #윤리적 접근\_공자, 노자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이 되어서 인(仁)하지 못하면 예(禮)를 지킨들 무엇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음악[樂]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예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한 것이 낫다.  
을: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니[小國寡民] 이들은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은 꾸밈없이 입으며 편안히 살아간다. 이웃 나라에서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평생 오고 갈 일이 없다.

<보 기>

- ㄱ. 갑: 충서(忠恕)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道)를 이루게 한다.
- ㄴ. 을: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 ㄷ. 을: 무위(無爲)의 삶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ㄹ. 갑과 을: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유교 사상가 공자(갑)와 도가 사상가 노자(을)의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2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10%인데, 아마 ㄴ의 ‘저절로’라는 표현에 부자연스러움을 느껴 ㄷ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오답 선지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정답률 78%의 난이도는 절대 아니었다.

### [정답 선지]

- ㄱ. 공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공자는 충서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며 인을 확장해 이상적인 천하의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 ㄴ.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다. 노자는 무위자연의 도를 깨달은 성인의 ‘무위지치’는 백성을 저절로 소박의 덕을 가지도록 한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ㄷ.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자연적 본성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 ㄹ. 노자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노자는 인위적이고 분별적인 지혜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예술관\_플라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추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닮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像)을 시에 새겨 넣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인들을 찾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도록 해야 한다.

- ① 예술은 도덕의 영역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어야 한다.
- ② 예술 작품에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 ③ 예술은 보편적 진리의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 활동이어야 한다.
- ④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 ⑤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에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

**[Comment]**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클타임’이 돈 만큼 오랜만에 서양 사상가의 예술관 주제가 출제되었지만, 난이도는 매우 쉬웠다. 혹여나 낯설게 느껴졌다면 실전에서는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후적으로는 EBS 교재의 해당 주제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다.

## [정답 선지]

⑤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모방으로서 예술의 참된 아름다움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8</sup>

## [오답 선지]

(설명 생략)

<sup>8</sup> 제시문에도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가 언급되어 있다.



# #평화관\_모겐소, 칸트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는 자국의 국력을 증강하며 타국의 국력을 감소 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이다.

을: 국가 간 제약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 ② 갑: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 ③ 을: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 ④ 을: 평화 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의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Comment]** 현실주의의 모겐소(갑)와 이상주의의 칸트(을)의 평화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당시 오답률 1위(무려(?) 48%)에 달했으며, 1번, 2번, 3번 선지를 선택한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확실히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

⑤ 모겐소와 칸트의 공통적 입장이다. 모겐소는 동맹과 같은 세력 균형을 통해, 칸트는 영구평화론에 따른 확정조항과 예비조항을 통해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선지]

- ① 모겐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모겐소는 국가 간 분쟁 해결에는 국제적 권위가 아닌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9</sup>
- ② 모겐소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모겐소는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이 아닌 자국의 이익 최대화라고 보았다.
- ③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 개선, 평화 연맹의 수립 등 여러 조항이 있어야 영구 평화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 ④ 칸트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칸트는 평화 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다.

<sup>9</sup> 또한 모겐소는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현실적으로 부재하다고 보았다.

# #해외 원조\_롤스, 싱어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

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윤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보 기>

ㄱ. 갑: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ㄷ. 을: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Comment]** 롤스(갑)와 싱어(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이다. ㄱ 선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으며, 실제로 27%가 ㄱ, ㄴ 선지를 선택했다. 당연하게도 이런 고난도 주제는 선지 자체를 꼼꼼히 봐야 하며, 특히 포함 관계와 전후 관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답 선지]

ㄴ. 싱어의 사상적 입장이다. 싱어는 인류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면,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ㄷ. 싱어의 사상적 입장이다. 싱어는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아도 공리가 증진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그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0</sup>

## [오답 선지]

ㄱ. 롤스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롤스는 무법 국가가 아닌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가 고통 받는다면, 정치 체제가 개선되도록 원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싱어의 사상적 입장이 아니다. 싱어는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가 원조 주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Tips] 사상적 입장

사상적 입장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지 판독'**이다. 단어 하나, 단어 간 관계 하나로 선지의 맞고 틀림이 바뀔 수 있으니 모든 선지를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 - 오답이 되는 원리 -

1. 단순 부정 표현
2. 전후 관계의 오류(A 보다 B)
3. 인과 관계의 오류(A 때문에 B)
4. 포함 관계의 오류(A 중 B, 모든 A)<sup>11</sup>

<sup>10</sup> 이처럼, 공리주의 사상가의 정답 선지는 상당히 개연적이다. 의도가 아닌, 결과로서 이익 증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sup>11</sup> ㄱ 선지가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와 '고통 받는 사회' 간 포함 관계를 건드리고 있다.